

# 尹-빈 살만 “이-팔 전쟁 인도적 상황 악화 막아야”

### 尹 “역내 안정과 평화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 할 수 있어” 한-사우디 투자포럼 참석 “양국 협력 스마트·에너지 확장”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인들과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했다.

사우디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아미마궁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을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의 역할 관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빈 살만 왕세자가 “현재 분쟁 중에 특정한 한 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추진 문제와 관련,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미국의 중재로 진행됐던 이스라엘과의 수교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접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경제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기업인 180여명이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도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기업인 180여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첨단 기술력·성공적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사우디의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을 언급하며 “이제 양국 간 협력 관계도 원유·건설을 넘어 제조업 스마트 분야로 확장

에너지 등 비전 2030과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구체적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며 “양국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는 양국 기업 간 정경에너지 협력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내용, 키디야, 홍해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미래를 향한 사우디의 과감한 투자가 대한민국 첨단 기술 및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다면 상상의 도시가 현실의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 함께 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라며 “양국 경제인들의 혁신적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협력 관계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말미에 “슈크란 자질란”이라고 말했다. 아랍어로 ‘매우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약 156억 달러(한화 21조1천억원) 규모의 계약 및 MOU(양해각서) 51건 체결이 이뤄진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체결한 290억 달러(한화 39조2천억원) 규모의 MOU 및 계약과는 별개로 추가되는 성과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두 금액을 합치면 총 446억 달러(한화 60조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 윤 대통령이 이날 참석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을 계기로 정경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아미마궁에서 열린 한-사우디 협정 및 MOU 서명·교환식 참석을 마친 뒤 환송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민주, 대통령 포함 여·야·정 3자 회동 제안

### “김기현 대표와 회동은 시간 낭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권철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노동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고, 정치가 실종돼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최근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설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자 회담 시기 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 회담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며 윤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괜히 김 대표를 내세워 민생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쇼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참으로 염치없는 제안이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쏟아지는 책임론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며 “공천권 행사도 자기 뜻대로 못 하는 무기력한 대표, 선거 참패에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대표가 바로 김 대표인데 만나 무슨 얘기를 논할 수 있고,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며 “순방 중인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이 먼저이어야 할 ‘여유’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되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 지지율 32.5%...2주 연속 하락

### 리얼미터...TK도 50% 붕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2.5%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10~13일)보다 1.5%포인트(p) 내린 32.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지난주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2주 연속(10월 1

주 37.7%→10월 2주 34.0%→10월 3주 32.5%)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9%p 오른 64.1%였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는 31.6%p로 오차 범위 밖이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의 긍정 평가율은 49.1%를 기록하며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조사를 병행했고 응답률은 2.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국힘 혁신위원장 순천 출신 인요한 교수 임명

### 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순천 출신 인요한(64·사진) 연세대 의대 교수가 23일 국민의힘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인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 기자를 상대로 통역을 자처하는 등 호남과 인연이 깊고 그의 선조들도 호남에서 학교와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히며 “인 교수는 지

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다”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선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들의 구성, 활동 범위, 안전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해 만나 혁



신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또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고 이만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을 거론하며 “많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식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